



**김제농생명고, 종자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서 대상**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3 종자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023 국제종자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대회에서 일반인과 경쟁해 이 학교 종자산업과 2학년 이지우 학생이 대상을 그리고 1학년 김하경 의 2인(팀명:FGCI)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지우 학생은 '종자산업 분야 확대를 위한 종자기공교육과정체계 수립과 환경규제 확대'라는 주제로, 종자기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기초교육부터 전문기양성 교육까지 이르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김하경, 장혜지, 강수연 학생은 FGCI라는 팀명으로 농업계 구인구직&정보전달 플랫폼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종자산업에 종사하기 희망하는 학생으로 느꼈던 취업정보 획득의 어려움에 착안해 보다 접근성이 높은 종자 및 농업분야 취업정보의 제공, 간편한 취업처 지원, 농업분야 온라인 강의 등을 갖춘 취업 플랫폼을 제시했다. 김용재 교장은 "전국 유일 종자산업분야 마이스터고인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종자산업의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감영 만마관·남관진 복원하자”**

추진위, 주민 상상콘서트 통해 “특자도 출범 맞춰 본격 복원 이뤄져야”

호남제일성인 전주감영의 남쪽 관문인 만마관과 군사병영인 남관진을 복원하자는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완주군 상관면민을 중심으로 한 만마관·남관진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곤)가 지난 28일 오후 2시 100여 명의 주민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남관초등학교 한울관에서 '제2회 만마관·남관진 복원 추진을 위한 주민 상상콘서트'를 열고 만마관과 남관진에 대한 역사적 가치 조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도시였던 전주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만경강 발원지인 슬치고개와 상관 편백숲 전주한옥마을과 연계되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적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만마관과 남관진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은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전주부성을 보호하고 호남평야의 곡물수탈을 막기 위해 1811년 조선 순조때, 완주군 상관면 원옥암을 국도 17호선 부근에 축성된 만마관은 2층 높이의 대규모 성문으로 호남제일관으로 불렸으나, 일제의 철도부설 등으로 훼손돼 현재는 성터 흔적과 남관진 조성비만 남아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류은환 우석대 동문, 장애인 아시안게임 '동메달'**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동문인 류은환(32·롯데지주) 선수가 제4회 한자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휠체어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경연했다고 전했다. 류은환 동문은 김건환(48·충남장애인펜싱협회)·이진솔(30·코오롱PNC)·최건우(22·광주장애인펜싱협회) 선수와 함께 지난 24일 중국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인도를 45:29로 제압했다. 태국과의 준결승에서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지만, 막판 집중력에 밀려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류은환 동문은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그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펜싱 선수의 길을 걸었다. 2021년 국가대표에 선발된 류은환 동문은 상하울루 휠체어펜싱월드컵 사브르 개인전과, 태국 휠체어펜싱월드컵대회 플러레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장은성기자

**고 한승헌 변호사 집중 조명... 진안을 빛낸 인물 심포지엄**

진안군은 30일 진안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진안군애향본부(본부장 우태만) 주관으로 '진안을 빛낸 인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안군을 빛낸 인물 중 대표 인물인 1세대 인권변호사였던 고(故) 신민 한승헌(1934~2022) 선생을 집중 조명했다. 심포지엄에는 유가족 및 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승헌 변호사의 생애와 업적에 중점을 두고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황승주 전 순창군수, 송기도,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무용과 시 낭송 등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우태만 본부장은 "우리 군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훌륭한 분들 중 첫 번째로 한승헌 변호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승헌 변호사님이



걸어오신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 한승헌 변호사는 196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 독재정권 시절 민정학원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군사정권 시절 시국사범을 변호하다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영노 변호사,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순창군은 30일 남원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노 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김영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조정위원, 순창경찰서·남원경찰서 선도 심사위원회 위원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순창군·남원시·장수군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로 10년 정도 활동하며 순창군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고향사랑기부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응원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과 주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순창이 태어난 고향이 아님에도 생활하는 고향으로 생각 기부에 동참해 주신 김영노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면역튼튼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보건교육실에서 40명의 임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면역튼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가 임환자들에게 수술과 항암을 위한 약물 및 방사선 치료로 급격하게 저하되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1회기) 건강상담 및 상담 및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2회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 및 요리실습 △(3회기)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한 과일정 만들기 및 소통의 시간으로도 3회기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환절기와 추위자는 날씨로 야외활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감소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시기로 면역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팀장 정희연)에서는 재가 임환자를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 및 상담, 간호용품 및 영양제 지원, 환자의 증상별 간호와 식이를 위한 영양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장기화되는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한용재 소장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가임환자의 면역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스스로 면역력과 체력 증진으로 질환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완산·제일·동백로타리, 어려운 이웃 위한 합동봉사 결의**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정진호),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김경민), 전주동백로타리클럽(회장 장안순)은 지난 28일 송천동 파인트리플에서 3개 클럽 합동모임을 갖고, 향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로타리클럽은 일반적으로 클럽 단위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클럽의 재정이나 회원 수에 따라 봉사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위 3개 클럽 회장들은 "3개 클럽이 연합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폭넓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기회를 갖자는 데에 모든 회원들이 뜻을 함께 했고, 조만간 각 클럽 집행부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1983년 창립해 올해 창립 40주년이 되었고,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은 1992년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이 스폰서로 창립된 클럽이며, 전주동백로타리클럽은 2007년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창립된 여성클럽이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통시장 홍보캠페인**

임실군이 전통시장에서 오수면과 임실을 장날에 맞춰 아이돌봄지원사업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임실군 아이돌봄기 선생님들이 홍보에 참여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장·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도 탄력적으로 대응,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비가 직접 집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부설초 푸른소리합창단, 초교 동요부르기 금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합창단은 지난 28일 2023년 전북 초등학생 동요 부르기 대회 3-4학년 및 5-6학년 독창 부문과, 중창부문에 출전,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총 221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중창부문은 푸른소리중창단(자체원 외 11명)과 노래숲요정중창단(김규리 외 10명) 두 팀이 출전해 두 팀 모두 금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동요 부르기기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운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음악 예술 영재 발굴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김신철 교장은 "감동과 성장이 있는 예술영재교육을 주력으로 삼아 온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음악 예술 영재 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종합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LINC.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최근 오스탐플랜트 미국 신시욕에서 열린 2023년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학생 포스터 경진대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에서 이 학교 치위생과 LINC 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대학원 안서현, 여미란, 김수연 박지는 학생지도교수 김미정(은 '의식화진정법을 적용한 성인환자의 치과불안 및 공포의 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서현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팀원 모두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정 교수는 "LINC.3.0 치과디지털기술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일손돕기·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과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법석),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근)은 30일 무풍면 덕지리에 위치한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농협 농촌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빈사벨트)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협무주군지부 전북안팎지재단 구천동농협 임직원 16명은 수확 후 사과 발 정리 및 빈사벨트 수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법석 지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협 차원의 다양한 영농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2023년 가을철 농촌봉사활동**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 직원 30여명은 30일, 살천면 소천리 일대를 찾아 폐비닐과 부직포 제거, 밭고랑 점검 등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농가를 찾은 유정민 주임은 "무주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포도를 사먹기만 했지 결실을 맺기까지 소중한 과정들을 잘 알지 못했다"라며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매년 지역사회와 협력해 농촌봉사, 소외계층 초청 행사, 김장 담기 참여 등 공동체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